

『창세기 8회: 창세기 8:1-22』

1.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심(8:1-19)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과 순종을 기억하셨다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자체를 기억하셨습니다.¹⁾ 노아는 당대에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홍수에서 노아를 구원하신 이유는 노아의 행동에 있지 않고, 노아의 존재에 있었습니다.²⁾

노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이유도 우리 행동이 받아들여질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이 완전하지 못함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의로움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노아 역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은 모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비극을 막기 위해 개입하시는 경우를 묘사합니다.³⁾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주로 “심리적인 경험으로 해석되기보다는 누군가를 향한 직접적인 행동”으로 해석됩니다.⁴⁾ (예: 아브라함, 라헬, 출애굽 시, 전쟁 시, 다윗 등)⁵⁾ 거대한 환란을 만나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고 말합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 자포자기가 아니라 예배로 반응하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반응합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창조세계를 해체하셨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행하십니다. 창세기 8:1은 하나님이 바람(루아흐)을 일으켜서 온 땅을 덮은 홍수의 물이 빠지도록 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루아흐)이 원래 혼돈하는 깊음 위에 운행하시는 창조 내러티브를 상기시킵니다. 홍수 후에 물이 줄어들자 물이 드러나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부리에 물고 돌아올 때 땅은 채소를 냅니다. 창조 내러티브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한곳으로 모아 물이

1)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 I』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333.

2) 김지찬,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서울: 솔로몬, 2019), 283.

3)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333.

4) B. S. Childs, *Memory and Tradition in Israel*, SBT 37 (Naperville: Allenson, 1962), 31.

5) 창 19:29, 창 30:22, 출 2:24-25, 민 10:9, 시 25:6-7

드러나게 하시고, 땅에게 채소를 내라고 명령하십니다.⁶⁾⁷⁾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타락한 인류와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아담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데에 실패했고, 하나님은 아담 자손 중 노아를 택하여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후에 노아 자손 역시 실패하여 하나님은 노아 자손 중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욥신의 아브라함 자손도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아브라함 자손을 택하셔서 오늘날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홍수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섬세하게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안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150일을 기다린 후, 다시 땅이 마를 때까지 40일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시 애굽에서 400년을 기다리고,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아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바람’을 보내셔서 백성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을 지나 건너가게 하셨습니다.⁸⁾ 노아-모세 모두 새 창조를 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새로운 인간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욥신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영으로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고, 영생을 소유했고, 성령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위대한 사명을 받은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6) Peter J. Gentry, Stephen J.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Wheaton: Crossway, 2012), 김귀탁 역, 『언약과 하나님 나라』(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234.

7) Bruce K. Waltke with Cathi J. Fredricks, *Genesis: A Commentary*(Grand Rapids, MI: Zondervan, 2001), 128-129.

1단계, 창조 이전: 하나님의 영(루아흐)이 깊은 위로 운행함(1:2), 하나님은 깊은 물 위로 바람(루아흐)을 보내심(8:1)

2단계, 둘째 날: 하나님이 처음으로 물을 나누심(1:6-7), 하나님은 물을 모으시고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를 다시 정하심(8:2)

3단계, 셋째 날: 하나님이 마르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물과 분리시켜 채소를 내게 하심(1:9), 마른 땅이 드러남(8:3-5)

4단계, 다섯째 날: 하늘이 날개 달린 창조물의 거처가 됨(1:20-23, 8:6-12)

5단계, 여섯째 날: 하나님 음성으로 첫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과 땅의 생물이 방주에서 나오라는 명령을 받음

(1:24-25 생물,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의 짐승, 8:17-19 생물,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6단계: 노아 가족은 새로운 아담 가족 역할을 담당

7단계: 하나님은 은혜로 복을 베푸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심(1:28, 9:1-2)

8) John H.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Michigan: Zondervan, 1992), 김동진·정충하 역, 『서술로서의 모세오경』(서울: 크리스찬서적, 2005), 243.

사십 일이 지나 노아는 방주에 창문(뚜껑)을 열고 까마귀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였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에 이어서 비둘기를 세 번 보냅니다. 처음에는 비둘기가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왔고, 마지막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왕래하는 모습’은 ‘바람(루아흐)이 불어 물이 빠지는 모습’과 언어구조상 매우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 까마귀가 방주와 혼돈한 세상을 왕래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오가며 혼돈한 세상을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곳으로 만드시는 모습은 닮았습니다.⁹⁾ 이처럼 노아는 까마귀를 왕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모방합니다. 노아는 “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재현함으로 그리고 이를 통해 피조 세계 안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참여자”입니다.¹⁰⁾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냄으로써 하나님이 홍수를 물리기에 하심을 믿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홍수가 물리기는 중에도 노아는 믿음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까마귀의 임무는 혼돈한 세상을 오감으로써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비둘기의 임무는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이 신뢰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간혹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구원받느냐?”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런 질문은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은 결코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안에는 거대한 오해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의 점으로 이해하는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아,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믿음의 지속성을 간과합니다. 내가 ‘믿은 것’이 언제 현실화될지를 기대하고 고민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떻게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구현될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늘 수동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점이 아니라 선으로 표현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순간 믿고, 나머지 시간에는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늘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방주에 타기 전에도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방주에 탄 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살아 있는 믿음은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살아 있는 믿음은 믿음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

9) R. W. L. Moberly, “Why did Noah Send Out a Raven,” VT 50/3 (2000), 353.

10) R. W. L. Moberly, “Why did Noah Send Out a Raven,” 354

리는 시간만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범사를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럴 때 복이 있습니다(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5-6).

2.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8:20-22)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는 물으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20절). 제사는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노아는 모든 정결한 동물 중 일부를 바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증명했습니다.¹¹⁾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진노가 긍휼로 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라는 말씀을 홍수 전(창 6:5)과 홍수 후(8:21)에 동일하게 반복하십니다.¹²⁾

인간은 악하다는 이유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인간은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변화시키시기로 하셨습니다. 인간의 악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킨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¹³⁾ 시내 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를 멈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의 믿지 않는 친구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다 더 참아주시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와 참으심으로 자신의 피조물을 다루실 것입니다. ... 이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단순히 강한 하나님과 궁핍한 세상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하나님과 반항하는 세상 사이의 고통스러운 관계입니다. ... 하나님은 심판자로 고통받는 세상 밖에 있다는 모든 잘못된 개념에 대항하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습니다.”¹⁴⁾

11)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11: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1996), 권대영 역, 『창세기 1』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479.

12) 김지찬,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서울: 솔로몬, 2019), 374.

13)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인간의 곤경을 해결하는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잔인함, 미움과 편견, 탐욕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상주의자들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하지만, 노아 이야기는 이 해결책이 거짓말이라고 증언합니다.”¹⁵⁾ 우리 삶은 과거를 청산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땅을 보존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이란 표현은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¹⁶⁾ 하나님께서 땅을 지속시키는 한에서만 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습니다. 베스터만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는 일 년을 가리키고, ‘낮과 밤’은 하루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이것들은 ‘쉬지 않습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의 순환은 간혹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기근 때에는 심음과 거둠이 멈추게 됩니다. 흑암의 재앙 때에는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는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중단에 불과합니다.”¹⁷⁾

그러나 완전히 중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와 땅의 보존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언젠가는 심판하실 하나님의 성품도 반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보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땅이 있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각각의 개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만큼만

14) Walter Brueggemann, *Genesis*(John Know Press, 1982), 386.

15) Peter J. Gentry, Stephen J. Wellum, 『언약과 하나님 나라』, 252.

16)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Texas: Word Books, 1987), 박영호 역, 『창세기 1-15』(서울: 솔로몬, 2006), 367.

17) Cassuto, *Genesis*, Part II, 123.

존재하다가 흠으로 돌아갈 운명을 지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 행해질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관점을 상실하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¹⁸⁾ 우리는 반복되는 질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으심,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공의를 기억해야겠습니다.■

18) 김지찬,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384-385.